청소년 비행/범죄

Juvenile Delinquency/Crimes

이 숙(Sook Lee)[1)]
백지숙(Jeesook Baik)[2)]
이주연(Joo-Yeon Lee)[3)]

ABSTRACT

Although juvenile delinquency has been continually decreasing, property and traffic crimes have been increasing. The age of delinquents or adolescent criminals are getting younger, and the number of female involved in delinquency or crimes has been increasing. The most frequently researched topic has been factors of causal effects on juvenile delinquency and development of counseling programs for the delinquents. Other studies have been investigating descriptive data, analyzing differences by sex, or categorizing delinquency behaviors by type, and suggesting political alternatives for restora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re have been several academic issues on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delinquency, shift in research topics, and research methods. There have been further discussions on the imminent values of making relevant policies based on the results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developing the preventive and therapeutic programs and career counseling programs, and working with the experts from local communities.

Key Words : 청소년 비행/범죄(juvenile delinquency/crimes), 다학문적 연구(multi-disciplinary research).

[1)]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2)]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3)]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eesook Baik, Department of Child Studies, Mokpo National University, 61 Dorim-ri, Cheonggye-myeon, Muan-gun, Jeonnam, Korea
E-mail : jbaik@mokpo.ac.kr

I. 현 황

1.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현황

소년범죄라 함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1980년 소년범은 65,459명(총 범죄의 10.5%)이었는데, 1990년에는 105,567명(7.5%)으로 소년범 수는 10년 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1990년에서 1995년까지 계속되다가, IMF 사태가 일어난 1997년에는 150,821명(7.8%)으로 일시적 증가세를 보였고 다시 2004년(3.6%)까지 감소되다가, 2006년(3.9%)과 2007년(4.6%)에 들어서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1)]

그러나, 인구규모의 감소를 고려해 청소년 10만 명당 청소년범죄자의 수를 산출해보니, 1997년에는 청소년 10만 명당 2,643명이 소년범이었지만 2005년에는 1,656명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이경상・이순래・박철현, 2007)

2. 청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청소년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980년에는 폭행, 상해, 공갈, 협박 등 폭력범이 36.4%, 절도, 횡령, 장물, 사기 등 재산범이 24.6%,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이 3.8%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에는 재산범이 3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력범 27.5%, 교통사범 23.7%, 강력범 2.7%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재산범이 폭력범보다 늘어나는 추세는 2003년을 기점으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력범은 1980년 3.8%에서 1985년 5.6%로 급증하였으며 199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1995년에 3.5%로 감소하였다.

<표 1>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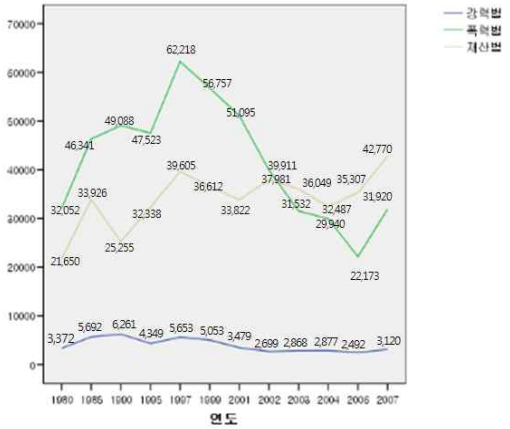
	1980[1)]	1985	1990	1995	1997	1999
총 범죄	620,710	1,005,892	1,402,417	1,804,405	2,117,759	2,400,485
소년범죄	65,459	102,225	105,567	124,244	164,182	150,821
구성비율	10.5	10.2	7.5	6.9	7.8	6.3

	2001	2002	2003	2004	2006	2007
총 범죄	2,426,050	2,416,711	2,441,267	2,606,718	2,401,537	2,548,010
소년범죄	138,030	123,921	104,158	92,976	92,643	116,135
구성비율	5.7	5.1	4.3	3.6	3.9	4.6

출처 : 청소년백서(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이후 200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3~2004년을 제외하고, 2006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폭력에 해당되는 강간은 1990년(2,675건)이전에 비해 2003년(1,192건)에

1) 1980년도 자료의 출처는 치안본부이며, 나머지 모든 자료는 대검찰청의 자료이다. 검찰통계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송치사건을 포함하기에 범죄의 빈도가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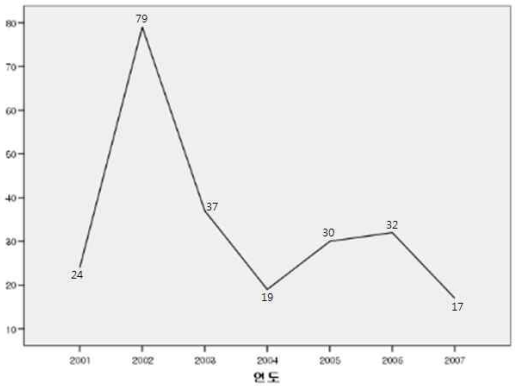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는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부터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폭력범은 1980년(36.4%)에서 1990년(46.5%)까지 증가하다 1995년(38.2%)부터 2006년(24.0%)까지 감소하였으며 2007년(27.5%)에 다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산범은 1980년(24.6%)에서 1985년(33.2%)까지 증가하였다가 1995년의 일시적 증가(26%)를 제외하고, 2001년(24.5%)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2002년부터 계속 증가하다가 2006년(38.1%)을 정점으로, 2007년(36.8%)에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마약범죄가 전체 마약류사범의 0.7% 이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청소년의 생활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청소년 마약범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2년에는 79명으로 24명에 불과했던 2001년에 비해 229%나 급증하였고, 2003년에는 37명으로 53%, 2004년에는 19명으로 48.6%로 각기 그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러다 2005년에는 30명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2006년에도 이어지



<그림 2> 청소년 마약류사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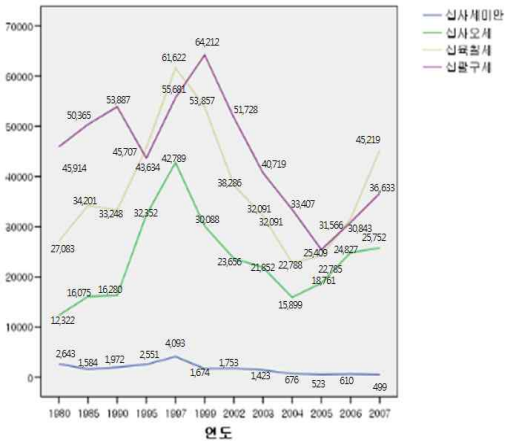
다 2007년에는 17명으로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청소년 마약범죄는 18세~19세 사이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5년도에는 이례적으로 16-17세의 범죄율이 높아서 앞으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겠다(<그림 2> 참조).

3. 청소년범죄의 성별 ·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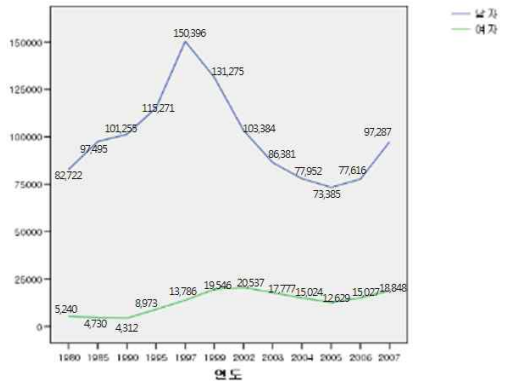
먼저,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18세~19세 청소년의 범죄비율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16세~17세 청소년의 범죄비율(36.8%, 37.5%)이 가장 높았다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다시 18세~19세 청소년의 범죄비율(43.2%, 29.5%)이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2006년(34.1%)과 2007년(38.9%)에는 16세~17세 청소년의 범죄비율이 18세~19세 청소년의 범죄 건수를 앞질러 청소년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다음으로 청소년범죄의 현황을 성별로 보면 1980년에는 남자가 82,722명(94%), 여자가 5,240명(6.0%)으로 남자청소년의 비율이 여자청소년의 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후 여자청소년의 비율은 1990년까지는 감소하다



<그림 3> 청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그림 4> 청소년범죄 성별 현황

1995년부터 차츰 증가하여 2003년에는 17.1%가 되었다. 그러다 2004년(16.2%), 2005(14.7%)의 감소세를 거쳐 2006년, 2007년에는 16.2%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980년과 2007년의 청소년범죄 성별 현황을 비교하면, 약 17년간 여자 청소년의 비율은 6.0%에서 16.2%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5배이상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4. 청소년 비행/범죄에 관한 연구 동향

현대사회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청소년의 개인, 가정, 사회적 환경뿐 아니라 발달 및 적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의 환경적 특성들은 청소년 비행의 꾸준한 증가를 야기하였으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의 집단화, 지능화, 연소화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비행/범죄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1980년 이후 현재까지 청소년 비행/범죄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다루었던 세부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비행/범죄에 관한 연구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부 주제는 청소년 비행/범죄와 관련이 있는 변인 및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요인, 가정환경 요인, 학교환경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 개인에게서 비행/범죄에 대한 영향 및 관련 요인을 찾고자 한 노력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격특성(김명권・심혜숙, 1999; 남영옥, 2001), 심리적 특성(곽금주・문은영, 1995; 류진숙・현은민, 2006),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김혜경, 2007), 자기통제력(민수홍, 2006), 충동성(정귀화, 2001), 우울(이경님, 2003), 귀인성향(권기형, 2002), 문제해결능력(허규, 1999), 성의식구조(함웅, 1985), 뇌정보처리 특성(임인섭, 2006) 등 매우 다양한 변인들을 분석하여 청소년비행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심리 성격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일차적 환경으로써 가정환경요인을 분석하기도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나 애착(송호창・오윤자, 2006; 옥정・오윤희・정현옥, 2001; 이경숙・엄혜련・정영윤, 2004),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가정폭력 경험(김재엽・송아영・박경나, 2008; 신선인, 2008), 부모와의 갈등 및 의사소통 유형(김영희・안상미, 2008), 가족 지지(엄명용, 2001) 등과 같은 가족관계적 요인뿐 아니라 가족구조 및 기능(박기성, 2007; 유안진・이점숙・서주현, 2005), 부부갈등 및 가정환경(이은아・정혜정, 2000; 정소희, 2007) 등 가족의 구조적 요인까지 포함한다. 다음으로 학교환경 요인은 넓은 의미에서 또래집단의 영향력(문은영・윤진, 1994; 박영신, 2002)은 물론 학교생활(유홍준・정은경, 1999; 이상용, 2001), 학교의 지역적·물리적 환경(김준호, 1996; 박정선, 2003), 학교성적(김지선, 1996)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변인으로 포함한다. 사회적 요인은 입시위주의 사회적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채구묵, 1997)를 비롯하여 사회구조(김문섭, 1999), 상대적 박탈감(하지원, 2002), 사회계층(김준호・노성호, 1989) 등 보다 넓은 환경적 요인을 청소년 비행/범죄의 영향 및 관련변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범죄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는 또 다른 주제로 비행청소년의 교정, 선도,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조성은, 2004). 비행청소년의 치료를 위해 연구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미련, 2009; 한정윤, 2009), 사회적 유능성 프로그램(양봉환, 2008; 최광성, 2007), 학교사회복지(김기환, 1996; 장희옥, 2006), 집단미술치료(김수진, 2007), 인지행동치료(김정민・박준희・한경은, 2007), 분노조절훈련 프로그램(김선규, 2005), 스포츠 프로그램(신용철, 2005), 치료레크레이션(이준일, 2005), 집단음악활동(최애나・차은선, 2007), 무용프로그램(조선하, 2004), 멘토링(하성민, 2001), 자아성장 프로그램(김진희, 2000)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교정·선도·치료 프로그램들이 치료에 초점을 두는 내용은 대개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 공격성 및 충동성, 나르시시즘, 지배성 등을 포함한다. 비행청소년의 교정 및 선도 프로그램과 함께 청소년의 비행/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법의식 개선(김혜영, 2008), 효실천 교육(한윤택, 2007), 스포츠 참여(한상표, 2000), 도덕교육(김선화, 2006), 레크레이션 활동(김경모, 1996)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앞서 살펴본 비행의 영향요인이나 이차적인 적용 연구 외에 일부 연구들에서는 비행 자체에 대해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 중에는 청소년비행의 현황이나 유형을 분석한 연구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경우가 많았다(김현실, 2002; 유성경, 2002; 이수진, 2006). 또한 비행의 변화과정이나 비행경로(노성호, 2006; 정한기, 1998), 재비행과정(최옥채・이정미, 2006), 비행발달궤적(정익중, Nagin, Hawkins, & Hill, 2001) 등을 연구함으로써 비행의 일반적 발달양상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비행의 과정이나 원인, 치료와 관련된 이론적 접근식 연구(심미영・정규석, 2007; 유순화, 2003; 이성식, 2003; 이성식, 2005; 이익섭・김근식, 1999)도 일부 이루어져, 청소년비행에 관한 이론, 실태, 원인, 실용적 측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비행청소년의 성문화를 분석하거나(김경호, 2005), 비행 및 재범 후의 삶에 관한 분석(주

영신, 2007),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임종진, 2001), 소년원 체험분석(이정미, 2007), 청소년 쉼터의 역할분석(온재천, 2006)과 같이 비행 자체보다 비행청소년의 경험적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도 이루어졌다. 또한 청소년 비행/범죄의 유형 중 성범죄나 성폭력, 성매매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도 그 실태, 원인, 대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김시업・김지영, 2002; 남미애, 2001; 도미향・윤지영, 2004; 신의진 외, 2005; 신현숙・이해경・이경성, 2006; 박성수, 2004; 박용순, 2000).

청소년비행/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해당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행/범죄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반면, 실제적인 정부 정책이나 법규에 대한 직접적인 고찰 및 평가에 대한 연구(김헌성, 2007; 문선화 1998; 송광섭, 2003; 이종갑, 2008; 조달현, 2004)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II. 연구쟁점

청소년 비행/범죄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질적, 양적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에 연구쟁점은 최근 10년간에 이루어진 연구들에 기초하여 서술하였다.

1. 청소년 비행/범죄의 개념적 정의

청소년 비행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 비행이란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모든 일탈행동을 일컫는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청소년비행의 영역구분은 연구자마다 다양한 기준을 제시한다. 일부 연구들은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 범죄를 구분하기도 하며(김원국, 2006), 또 다른 연구들은 넓은 의미에서의 청소년 일탈을 정도에 따라 영역별로 구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①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주거침입, 절도 등과 같이 형법을 위반하는 중한 범죄행위와 ② 사소한 절도 및 폭행 등과 같이 약한 비행, 그리고 ③ 흡연, 음주, 음란물 접촉, 가출 등 청소년이라는 신분에 의해 일탈행동으로 여겨지는 지위비행 등의 세 가지로 청소년 비행/범죄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며, 비행의 특성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① 일반지위비행, ② 약물비행, ③ 성비행, ④ 재산비행, 그리고 ⑤ 폭력비행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정강균, 2008).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에서 소개하는 영역구분은 경험적 연구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연구자의 연구초점에 따라 임의로 재분류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어떤 연구는 비행의 유형을 제한형 대 평생지속형 범죄(양계민・김의철, 2003)로 나누기도 하며, 또 다른 연구들은 경비행 대 중비행(김예성・김선숙, 2009), 폭력비행 대 비폭력 비행(문성호, 2002), 혹은 초기비행 대 지속적 비행(김희화, 2001), 조기비행 대 후기비행(이상균, 2008) 등 매우 독자적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비행/범죄에 대한 용어 사용 및 개념적 정의에서 연구별 일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이는 각각의 연구결과들 간의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범죄에 관한 향후 연구들은 청소년 비행/범죄의 개념적 정의는 물론 비행/범죄의 영역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청소년 비행/범죄 연구의 주제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비행/범죄에

관한 연구들은 대개 청소년 비행/범죄에 대한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를 밝히고자 비행/범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비행청소년들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영향요인을 밝히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기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단편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최근의 연구들은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연구는 가정, 학교, 친구관계 등 다양한 영향요인 모두를 포함한 종합모형을 분석하고 있다(이철, 2009). 한편,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비행에 대한 귀인성향의 영향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역할을 분석하는 등,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매개변인을 밝히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김동기・전지영・이선주, 2008; 김소정, 2008; 표갑수・이진성, 2009). 또한 부모관계 및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적 영향을 분석(임은희・남현주, 2008)하거나, 가정 사회적 영향요인에 대한 또래접촉의 중재효과를 밝히는 연구(이은희・공수자・이정숙, 2004)도 이루어졌다. 이처럼 과거에 관련 변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분석에서 최근에는 보다 복잡한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비행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또래집단이라는 하나의 변인은 초기 연구에서 비행의 원인 즉 독립변인으로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비행의 결과로 보기도 하며(정기원, 2007), 비행 행동의 중재요인(이은희 등, 2004)으로 보기도 하는 등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청소년 비행/범죄의 연구는 과거 단편적인 원인을 분석했던 것에서 앞으로 보다 통합적이고 심층적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정보화에 따라 청소년 비행/범죄에 관한 연구의 주제도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2000년대에 들어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비행에 대한 연구(김수정, 2004; 노태봉, 2003; 이경님・하연미, 2004; 이성식, 2005; 천정웅, 2000)가 나타났다. 이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해당 주제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청소년 비행/범죄 연구의 방법

청소년 비행/범죄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비행 및 범죄행동의 수행여부를 질문함으로써 청소년 비행/범죄를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포함했는가에 따라 연구들마다 각각이 의미하는 청소년 비행/범죄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청소년 비행/범죄의 조작적 정의가 각 연구들마다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연구의 결과들을 비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비행/범죄와 관련된 측정도구 개발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비행청소년 사정도구 개발(전은희, 1997), 비행원인 척도화 연구, 비행촉발요인 조사도구 개발 연구(이수정・조은경, 2005), 비행성향 예측을 위한 로샤검사 활용(오가혜・고기원・조선미,

2005), 자기보고형 문제행동평가척도 개발(이해경 · 신현숙 · 이경성, 2004), 교사용 청소년 문제행동평가척도 (이해경, 2003) 등 일부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에 향후 연구들은 청소년 비행/범죄에 대한 통일된 개념정의의 수립과 더불어 표준화된 척도개발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실제적, 정책적 이슈

1. 다학문적 연구결과에 기반을 둔 정책수립의 필요성

청소년 비행/범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기반을 갖는다. 연구논문들이 발표된 학술지를 보면 복지관련 분야의 학술지나 아동 및 청소년 발달 분야의 학술지, 법 · 행정 관련 분야의 학술지는 물론 교육학 분야의 학술지, 사회학 분야의 학술지, 가족학 관련 분야의 학술지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연구분야는 저마다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 비행/범죄에 대한 실제적 정책수립 시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반영함으로써 다학문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청소년 비행/범죄에 관한 향후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들의 결과를 통합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실용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제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은 물론 그에 대한 평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청소년관련법 제정을 통한 예방, 선도 및 교정 프로그램의 실용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비행/범죄에 관한 연구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제는 비행의 예방 및 선도,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프로그램의 일회적 적용과 단편적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대부분일 뿐, 구체적인 실용화 방안이나 지속적인 실행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 비행/범죄는 비행이나 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는 데 국한되기보다는, 보다 건전한 정서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새로운 행동양식을 학습하고 익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 정책적 지원은 청소년 관련 법 제정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비행/범죄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의 내면적인 욕구불만, 충동성, 스트레스 등을 개선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이 관련법의 체계내에서 구성되고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며, 미래의 건전한 가족형성을 대비한 가족생활교육과 진로교육 등이 정례화 되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아동학 전공자들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며, 대학생들의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한 상담봉사 등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 관학협력을 통한 학문의 발전과 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비행/범죄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진로 지도의 활성화

청소년 비행/범죄의 가정환경적 배경을 분석해보면 심리적・사회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등에서의 선도기간이 끝나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 해도 청소년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소년원 입원전과 유사한 열악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행/범죄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진로지도는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계속이나 진학을 위한 지원과 나이든 청소년을 위한 취업준비 및 안정된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자립할 때까지 가정의 기능을 대신해줄 수 있는 그룹홈의 활성화와 시대적 변화에 맞는 취업교육프로그램 등이 적절히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지역사회전문가공동체 네트워크 구성

청소년 비행/범죄는 심리적 문제, 의학적 문제, 교육적 문제, 사회복지적 문제, 생활교육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사회별로 일상생활에서 장기간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일종의 지역사회전문가공동체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내의 전문가들을 몇 개의 공동체집단으로 구성하고, 비행/범죄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사례별로 파악한 후 그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현재 많은 재정을 확보하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와 연계하여 실시한다면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곽금주・문은영(1995).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2) : 청소년 이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8(1), 1-11.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청소년백서.

국무총리기획조정실(1995). 청소년백서.

권기형(2002). 부모양육태도와 귀인성향 및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모(1996).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호(2005). 남자 비행청소년의 성문화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 36-63.

김기환(1996). 학생복지를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필요성. 한국아동복지학, 4, 159-185.

김동기・전지영・이선주(2008). 청소년의 여가제약과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5(5), 157-179.

김명권・심혜숙(1999). 청소년 성격유형과 비행의 관계 : 남자 인식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유형학회지, 6(1), 51-65.

김문섭(1999). 사회구조와 청소년의 비행적 하위문화에 관한 연구. 문화연구, 2, 15-31.

김선규(2005). 분노조절훈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화(2006). 청소년 비행에 대한 도덕교육적 해결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정(2008). 남자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에서 남성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5(7), 133-156.

김수정(2004).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1), 69-88.

김수진(2007). 집단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14(1), 81-98.

김시업・김지영(2002). 미성년자 원조교제의 사회문화적 구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8(1), 1-15.

김영희・안상미(200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1-30.

김예성・김선숙(2009).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경비행 및 중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 탐색. 사회복지연구, 40(1), 139-161.

김원국(2006). 청소년 비행실태와 그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엽・송아영・박경나(2008).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연구 : 긴장요인으로서의 자녀학대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7, 295-318.

김정민・박준희, 한경은(2007). 비행성향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31-41.

김준호(1996). 학교주변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 사회과학연구, 3, 133-162.

김준호・노성호(1989). 사회계층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형사정책, 4, 197-237.

김지선(1996). 학업성적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희(2000). 비행청소년의 자아성장 프로그램의 효과.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헌성(2007). 청소년 범죄와 보호관찰 : 보호관찰제도의 현 실태와 전망. 경성법학, 16(1), 17-38.

김현실(2002). 한국 청소년 비행의 성차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2(4), 492-505.

김혜경(2007).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영(2008). 청소년 비행의 예방을 위한 법의식 개선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화(2001). 청소년의 초기 비행과 지속적 비행에 대한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8(1), 143-162.

남미애(2001). 청소년의 매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8(1), 271-306.

남영옥(2001).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경계선 성격특성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 59-88.

노성호(2006). 종단적 자료를 이용한 청소년 비행화모델의 검증.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논총, 22, 57-83.

노태봉(2003). 정보화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유형 변화와 사이버 비행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미향・윤지영(2004). 청소년 성매매와 성보호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1), 19-33.

류진숙・현은민(2006).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09-221.

문선화(1998). 비행 범죄 청소년을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선방향. 한국아동복지학, 7, 269-315.

문성호(2002). 청소년폭력과 비폭력 비행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3), 145-162.

문은영・윤진(1994).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7(1), 44-63.

문화관광부(2000). 청소년백서.

민수홍(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 패널자료를 이용한 인과성 및 일반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3(6), 27-47.

박기성(2007). 가족구조, 가족기능 및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비행과 범죄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수(2004). 청소년 성매매의 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7, 123-149.

박영신(2002). 감각추구성향과 또래관계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용순(2000).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 :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7(2), 137-159.

박정선(2003).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비행 : 다수준 접근의 적용. 형사정책, 15(2), 111-154.

보건복지가족부(2008). 아동・청소년백서.
송광섭(2003).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형사정책, 15(2), 193-223.
송호창・오윤자(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 모 애착과 청소년의 비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2), 151-173.
신선인(2008).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3, 153-182.
신용철(2005). 스포츠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행 청소년의 선도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의진・오태성・이영준・송원영・이경숙・유은희(2005). 성범죄 청소년의 정신사회적 특징 : 일반범죄 청소년과의 비교. 놀이치료연구, 9(1), 39-52.
신현숙・이해경・이경성(2006). 성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에 따른 비행 청소년의 MMPI-A 프로파일 비교. 청소년학연구, 13(4), 197-223.
심미영・정규석(2007). 한국 청소년비행에 관한 Hirschi 이론의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12(3), 147-171.
양계민・김의철(2003). 청소년기 제한형 및 평생 지속형 범죄 청소년의 판별변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2(1), 63-88.
양봉환(2008). 사회적 유능성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대인관계기술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엄명용(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8, 149-178.
오가혜・고기원・조선미(2005). 로샤 검사 반응에 의한 청소년 비행성향의 예측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4), 195-214.
옥정・오윤희・정현옥(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 재소중인 비행 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0(2), 259-270.
온재천(2006). 가출청소년의 비행예방과 청소년 쉼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성경(2002). 청소년 비행관련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의 남녀별 차이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01-217.
유순화(2003).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에 의한 청소년 비행 예측. 청소년학연구, 10(4), 289-315.
유안진・이점숙・서주현(2005). 가족 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 대한가정학회지, 43(10), 91-102.
유홍준・정은경(1999). 학교생활 요인과 학교청소년 비행.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38(1), 123-150.
이경님(2003).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2(1), 1-13.
이경님・하연미(2004). 청소년의 인터넷 관련비행과 관련 변인간의 경로 분석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5), 127-143.
이경상・이순래・박철현(2007).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숙・엄혜련・정영윤(2004).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애착유형(AAI)에 따른 아동기 양육경험과 문제행동.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6(3), 511-532.
이미련(2009). 에니어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균(2008).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 조기, 후기비행 진입청소년의 비행경로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4, 249-282.
이상용(2001).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학교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식(2003). 청소년폭력 비행에 있어 일반 긴장 이론의 검증 : 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형사정책, 15(2), 85-105.
이성식(2005). 사이버상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일반이론의 검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 227-248.
이수정・조은경(2005). 경찰단계에서의 소년범 위험성 평가를 위한 비행촉발요인 조사도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1), 27-43.

이수진(2006). 비행에서의 남녀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4, 213-252.

이은아・정혜정(2000).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3(2), 1-12.

이은희・공수자・이정숙(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3-145.

이익섭・김근식(1999). 질적 연구를 통한 청소년 비행화 과정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2), 61-78.

이정미(2007). 비행청소년의 소년원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9(1), 63-83.

이종갑(2008).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8(1), 89-110.

이준일(2005). 치료레크리에이션이 비행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철(2009).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효과 연구 : 종합 긴장모형과 세부 긴장모형을 통한 탐색. 청소년학연구, 16(3), 237-257.

이해경(2003). 교사용 청소년 행동문제평가척도의 개발 : 신뢰도와 타당도의 분석. 청소년학연구, 10(4), 233-262.

이해경・신현숙・이경성(2004). 청소년 자기보고형 문제행동평가척도의 개발 :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7(1), 147-170

임은희・남현주(2008). 부모와의 관계 및 청소년 스트레스 간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3), 23-48.

임인섭(2006). 초기 청소년의 정서능력과 뇌 정보처리 특성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감성과학, 9(4), 307-319.

임종진(2001). 우리나라 비행청소년의 처우실태와 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희옥(2006). 청소년 비행 및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사회복지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은희(1997). 비행청소년 사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강균(2008). 청소년 비행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귀화(2001). 충동성과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기원(2007). 비행친구 : 청소년 비행의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청소년학연구, 14(1), 213-236.

정소희(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 5-34.

정익중・Nagin, D., Hawkins, J. D., & Hill, K. G. (2001). 관찰대상중심적(person-centered) 접근을 통한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17, 197-218.

정한기(1998). 한국의 청소년 비행경로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달현(2004). 비행청소년의 소년사법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하(2004). 비행 청소년 자아향상 무용요법 프로그램 개발. 한국체육교육학회지, 9(3), 81-91.

조성은(2004). 비행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11(3), 135-150.

주영신(2007).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 후 삶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채구묵(1997).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치유방안 :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0, 227-252.

천정웅(2000).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2), 97-116.

최광성(2007). 사회적 유능성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애나・차은선(2007). 집단음악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성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1-14.

최옥채・이정미(2006). 청소년의 재비행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교정연구, 33, 143-167.
표갑수・이진성(2009). 중학생의 귀인성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청소년학연구, 16(1), 251-270.
하성민(2001).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터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지원(2002). 상대적 박탈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상표(2000). 스포츠 환경이 청소년 비행예방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윤택(2007). 효실천 교육에 의한 청소년 비행 예방 연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정윤(2009). 사랑증진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함 웅(1985). 성의식구조 및 행동양식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 규(1999). 충동성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년 8월 22일 투고, 2009년 10월 28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